

새천년 환경문제와 생활의식 개혁을 위한 여성의 역할

2003-3-8

78.4 Page

2003
3월 8일
공민신문

박 영 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사는 세대)

2000년도가 새천년이다 또는 아니다 라는 논자들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흥분과 기대속에 새해와 새세기를 맞이 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두세기와 두천년을 걸쳐 사는 세대로서 우리에게 20세기를 살아온 경험을 거울삼아 21세기를 바로 살게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일찍이 <인류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세번째 밀레니엄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갈등과 대결, 지배와 피지배, 경쟁과 소유 그리고 독점의 원리가 주도한 시대로서 인간의 자연 착취, 강자의 약자 억압, 생명경시 및 물질만능의 왜곡된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류의 파멸이 예고되고 있다.

새천년은 공생과 자율, 그리고 공유의 원리가 주도하는 평등, 평화, 화해의 세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류의 지속생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사의 방향은 전환되어야만 한다.

세계는 새로운 100년을 ①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로 세계는 국경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화하여 지구정치, 지구경제, 지구환경의 세기로 ② 국가주권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시되는 지방화와 국제기구, 경제기구, 민간단체 등의 사회조직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③ 20세기가 경제의 세기, 남성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환경의 세기, 여성의 세기로 전망하고 있다.

밝은 미래에 대한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준비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서 현실화된다. 위기를 돌파하는 에너지는 사회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나오는 것이 인류역사의 법칙이라고 전제하면서 어떤이가 말하기를 주변에 있던 여자들이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한 것에 동의한다.

환경의 세기, 여성의 세기는 여성이 이끌어가야 한다.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지적해 두는 점은 이 여성의 힘이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여성성의 힘을 의미한다. 이 힘은 여성이라는 인간집단이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인간의 여성성이 발휘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II. 환경문제란

환경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생명체의 삶과 발달에 외부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들의 총체라고 되어 있다. 생명체에 따라서 그 환경의 개념은 달라진다. 그렇게 다양한 환경이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지구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환경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주변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환경으로는 생태환경, 인공적인 것으로는 사회 및 문화환경 등을 들 수 있다.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즉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 식품, 물, 공기를 비롯한 고도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을 정화해 주는 것이다.

이 두가지 기능의 관계는 인간활동과 지구생태계의 순환기능의 일부이다. 환경문제란 이러한 순환기능을 교란시키고 파괴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지나친 인간활동으로 지구생태계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정화능력을 마비시킨 것을 의미한다. 결국 환경문제는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더이상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현대문명의 위기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오늘날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산업공해문제>와 <지구환경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공해문제는 국지적인 문제 또는 특정활동에 의한 일과성인 현상으로서 그 시정이 가능하다. 그에 비해 지구환경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며 인류의 존속문제와 관련이 있다.

산업공해의 경우 가해자=기업, 피해자=일반인 등의 도식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인 경우 모든 사람이 피해자, 가해자, 관리자라는 데서 우리의 삶의 양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오늘의 지구환경문제는 지역환경문제의 누적으로 대두된 문제로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라는 표어가 말해주듯이 그 근원은 하나이다.

III. 환경위기의 원인

오늘의 생태계 파괴현상은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위해 개발된 엄청난 기술이 민수용품 생산에 투입되면서 소모품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하는 현대인들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구폭증과 도시화

그리고 빈부의 격차문제 등이 지구환경파괴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의 환경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 ① 인간들이 최근까지 모든 것을 인간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해왔다는 것이다.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게 된 것은 아폴로 우주선이 발사된 때의 일이다. 그때 인간이 발견하게 된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인간이 생물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며 이 깨달음으로 인한 인류의 사고의 전환은 제2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현세대인은 지구와 생물권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물체가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개의치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에서보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 개발의 대상으로 여겼던 서구에서 더욱 그러했다.

- ② 만물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 모든 세대의 거처이기도한 생태계를 마치 현세대인이 그들만의 것인양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지구의 마지막 세대인것처럼 함부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손으로부터 신탁받은 것이다”라는 케냐의 격언에서 보듯이 우리는 지구를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쓰고 있다. 지구환경보고서인 <우리의 공동미래>에서 주장하고 있는 21세기 세계만들기의 핵심원칙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지구의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현세대의 자연자원의 남용은 미래세대의 몫을 앞당겨 쓰는 것이며 후세에게 빚돈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 ③ 인간이 소모하고 있는 자연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60년대 말에 발표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보고서는 자원고갈을 경고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성장의 추구가 오늘과 같이 물질우선, 경제우선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환경오염, 수자원, 에너지, 식량고갈에 의해 지구는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자원은 유한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 ④ 현세대인이 뒤늦게 깨닫게 된 오류는 지구의 자정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70년대의 자원고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해온 인류는 오늘날 자원고갈의 위협보다 더 급한 폐수 및 폐기물 처리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현대사회가 배출하고 있는 쓰레기의 질과 양이 지구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누구나가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필수요건인 생산과 소비양식 변화를 위한 실

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해결의 딜레마이다.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지구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머지 20%의 자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80%의 인구는 생존을 위해 또는 자원다소비국의 생활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는데서 지구환경은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나만이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편리함과 풍요함을 추구한 나머지 인류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되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문제, 공기문제, 먹거리문제, 환경호르몬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구적으로는 오존층 파괴, 산성우, 지구온난화 등의 지구위기의 경고가 있다.

IV.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구환경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장시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요하는 사안이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활동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양식에 일대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변혁은 인간활동의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개인은 개인대로 환경친화적인 정책, 생산, 소비를 각기 제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데서 비롯된다.

인간활동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발생원에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자원을 아끼며 폐기물을 감축하고,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실천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1992년도 브라질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의 행동계획인 <의제 21>이 만들어졌다. 40장으로 되어있는 의제 21의 제4장에서는 지구환경 악화의 주원인을 지속불가능한 형태의 생산과 소비양식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변혁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1997년도 6월 23일에서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지구정상회의+5>로 불리는 유엔환경특별총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총회는 92년 리우에서 합의한 의제 21과 기후변화와 오존층 파괴 문제 등에 관한 국제환경협약의 그후 5년간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새로운 다짐을 위한 국가 정상들의 정치적인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외무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등의 일행이 대거 참가했다.

이 총회에서 지난 5년간의 의제 21의 실천성과 점검에서 특히 부진했던 과제로 지적된 것은 바로 제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산과 소비양식의 변화문제

였다. 지구환경문제의 악화일로 현상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총회에 서도 자원다소비국가들이 비판의 표적이었던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도 92년 이래 세계 인구의 20%인 과소비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다소비층: GNP 7,500불)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한다. 소득가설에 의하면 환경문제는 국민소득이 5000불을 넘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인식된다고 한다. 1996년말에 실시한 <서울시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과 실천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95.5%의 서울시민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생활실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기때문이라는 것이다. 환경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시민의 87.7%가 환경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서 입증되고 있다.

삶의 질을 회구하는 세기에 들어선 국민의 또는 지구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많은 국제협약이 만들어지고 의제 21의 실천사항을 감시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가 유엔에 설치되었다. (서울시, 2000 초) 국내적으로는 <환경보전 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규제가 만들어지고 생산과 소비양식의 변화를 기도하고 있다. 환경행정의 방향도 종래의 사후처리, 공급관리 원칙에서 사전예방, 수요관리원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지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지구시민 모두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인 녹색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IMF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소비억제의 새로운 삶의 양식과 사회풍조를 모색해야 한다.

V. 녹색생활이란?

녹색생활이란 환경에 부담을 덜주는 생활양식으로서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환경을 걱정하는 녹색소비자들의 삶의 지혜로서 계속 개발되어 전파되어야 한다. 그 일반적인 형태의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① 자신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Eco Check)을 하는 생활이다.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쓰레기 감량, 물건 재사용, 자원재활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적정량의 물질 사용 등의 소비억제를 위한 것이다.(UNEP의 에코가족운동)

② 녹색소비 생활은 물건을 구입할때부터 시작된다. 구입하는 물건에 사용된 자재의 채취과정, 물건이 만들어진 과정, 사용하고 버리기 까지의 과정을 따져 본다. 그리고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폐기시에는 재자원화가 가능한가, 오염원이 아닌가 등을 고려한다. 식품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생산되어져 가공되고 유통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생산양식의 변혁을 이끌어낸다. 녹색구매지침서)

③ 녹색소비자는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쓰지 않는 것을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일단 생산된 물품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재활용센터 또는 녹색가게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재사용가게가 그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에는 환경백화점 운영)

④ 녹색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이웃간에 공유한다. 값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생활공간을 물건보관용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영국아파트에서 시행)

⑤ 녹색소비자들은 사용한 물품의 최종 폐기는 철저히 분리배출한다. 재생산을 위한 물질별 (종이, 철, 유리, 섬유, 목재, 유류, 음식물찌꺼기 등) 분리배출하므로 재사용 또는 재자원화하도록 한다. (정부의 적정 정책 필요)

⑥ 녹색소비자들은 재생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외국에서는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품질이나 외양이 수준미달이거나 값이 더 비쌀 수도 있는 오늘의 실정은 정부의 정책지원과 녹색소비자들의 성원으로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소비자의 희생이 따른다)

⑦ 녹색생활인은 1개 이상의 환경운동체 또는 시민단체에 속한다. 녹색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련정보를 필요로 한다. 녹색구매지침을 비롯한 환경정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매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오늘의 현실이 구매촉진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감안할때 녹색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것이 현명하다. 관련단체의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보 제공을 받는 것 외에도 함께 하므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과 사회에 패러다임전환의 바람을 일으키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

⑧ 녹색소비자가 녹색생산을 견인해 내야 한다. 소비자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에서의 의식개혁과 구매력으로 기업의 녹색생산과 녹색경영을 촉진해야 한다. 그것은 녹색생활을 철저히 실천하는데서 비롯된다.

VI. 지속가능한 사회와 여성의 역할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한다. 새세기는 정보화사회로서 여성(Feminine), 감성(Feeling), 가상(Fiction)의 3F의 시대라고도 한다. 여성의 섬세함, 유연함, 특유의 상상력, 생명에의 경외심 등의 여성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진가를 발휘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서 여성만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단지 오늘의 환경문제가 여성이 보다 많이 간직하고 있는 여성성이 대안을 창출해낼 수도 있다는 기대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21세기환경운동국제여성연합에 가입

지금까지의 남성과 관주도의 잘못된 역사로 인해 환경파괴와 죽음의 문화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면 환경을 되살리고 생명의 문화로의 전환은 여성의 참여와 민관협력으로 시도해야 한다. 여성과 민을 사회운영의 대상자, 요구자, 저항자의 위치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주체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관계수정이 필요하다.

사회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속해 있던 여성이 오늘의 위기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구의 반이라는 점, 아직까지 써보지 않은 잠재력이라는 점, 그리고 피지배자로서의 억눌림속에서 키워진 희생정신, 남을 생각하는 연민의 정, 인내심, 원칙집착 등의 귀중한 자산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지역현장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뒷받침이 되어 주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지역사회를 더 잘 아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을 지키고 있는 주역들이다. 한 가정의 삶을 보살피는 그 능력으로 담당하고 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뽕이 번다'는 말대로 여성들의 기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조건을 자기가 결정하는 중심부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속가능한사회는 지구시민 모두의 참여로서 지탱된다. 여성도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지구시민의 일원으로서 환경파괴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감시자이다. ① 가해자로서는 녹색생활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② 피해자로서는 쾌적한 지역만들기(동리청결, 녹화, 하천살리기, 공원, 문화재 등의 실명제관리)에 앞장선다. ③ 감시자로서는 지역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 기업, 정부 상호간의 감시활동을 한다. 1인 3역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확보(정책결정기구 참여)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VII. 맺는말 (함께 하는 데서 힘이 생긴다)

녹색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기의 삶의 양식을 바꾸는 일도 쉬운 것이 아닌데 나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문화창출은 모래알 같은 개개인의 힘으로는 어렵다.

녹색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이상의 환경운동체, 시민운동체 또는 여성운동체에 가담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현재 다양한 운동체들이 의식있는 여성들의 활동의 장이 되어 주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모든 여성들로 구성된 <여성환경연대(02-3463-7224)>가 출범하기도 하였다. 이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환경단체에 속해있는 여성활동가, 시민단체와 여성운동체에 속해 있는 여성환경인, 지역사회 곳곳에서 녹색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환경실천인, 그리고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환경전문가들이다.

국제적으로는 <아세아여성환경연대>와 <여성,환경과발전기구(WEDO)>가 있다. WEDO는 세계여성환경연대이면서 유엔환경자문기구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러한 기구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지구환경보전 활동을 함께하려고 한다.

금년 6월5일에서 9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유엔여성특별총회(베이징+5)가 열릴 예정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대표단과 민간대표단들이 참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내년도는 <세계자원봉사자의 해>이기도 하다. 자원봉사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최근 세계 여러나라들에서는 여성들의 정계진출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해서 고무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금번 총선을 통해서 예고되고 있다.

21세기는 과연 여성의 세기,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인가. 인구의 반, 써보지 않은 우리나라 여성의 잠재력에 기대해 본다.